



제목	Rumi: Bridge to the Soul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perOne
발행일	2007. 9. 18.
저자	Coleman Barks
출판도시	San Francisco
페이지수	160
ISBN 또는 ISSN	978-0061338168

내용 요약

2007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잘랄에딘 모함마드 루미(Jalāl ad-Dīn Muhammad Rūmī, 1207~1273)의 해이다. 이 위대한 시인의 80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기구가 루미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축하한 것이다. 이렇게 루미는 페르시아와 콘야가 낳은 중세 시인임에도 21세기에 걸맞은 세계적인 시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루미의 기념비적인 명성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우려한 콜먼 바크스가 루미 알리기와 루미 살리기에 앞장섰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바크스는 루미가 모든 종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1273년 루미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루미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각각의 종파나 교리를 넘어서는 종교관을 갖고 있으면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루미는 ‘영혼의 다리’를 건너 문화와 종교, 기원이나 신조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루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일 것을 제안한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루미의 시를 읽으면 독자는 내면의 침묵으로 찾아들고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깊이 깨어있는 의식 속으로 빠져 들 수 있다.

최근 30년간 루미를 번역한 공적을 인정받아 테헤란대학교에서 페르시아어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바크스는 90편의 루미 시를 새로 수집하고 번역하여 이 책을 엮었다.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는 바크스 이전에 어떤 형태로도 출판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다리’는 2006년 5월, 이 책의 저자 바크스가 로버트 블리와 함께 방문한 이란 이스파한의 카주(Kahju)교를 지칭하는데, 책 속에서 여러 장의 카주 다리 이미지를 보여준다.